

서울시 상자텃밭 가꾸기 참여자 만족도 분석

Analysis of Participants' Satisfaction Degree on the Planter Box Gardening in Seoul

장진¹ · 이숙미¹ · 오충현² · 이강오³ · 이주연³

¹동국대학교 대학원 환경생태공학과, ²동국대학교 환경생태공학과, ³서울그린트러스트

I. 서론

서울특별시도 도심지의 부족한 녹지 공간을 확보하고 도시열섬, 대기오염을 완화하며 도시 미관을 개선시키기 위한(김승윤, 2005) 시민참여형 도시녹화를 위하여 시민 및 단체들과 연계하여 생활체험형 도시녹화인 상자텃밭 가꾸기 사업을 금년 상반기부터 시작하였다. 1992년에 서울시에서 최초로 시작한 텃밭 농원사업은 주말농장, 가족농원의 이름으로 전국에 보급되었고(농촌진흥청, 2009) 또한 서울시내 대형건물에 옥상공원을 218개소 10만4천m² 조성하였다. 이와 더불어 서울시에서 금년에 2만개의 상자텃밭을 시민들에게 보급하였다. 지역주민이 스스로 도시를 녹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추진되어 도시 내 자투리공간, 시 지원 범위 내에 들지 않는 작은 옥상, 주택가 골목, 어린이집 마당 등에서 도시민의 자발적인 도시녹화를 이끌어 내었으며 최근 들어 친환경 유기농 안전한 먹거리 제공과 아이들의 환경교육 등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생활체험형 도시녹화 방법인 상자텃밭의 필요성은 더욱 증대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상자텃밭 가꾸기 사업이 추진됨에 있어 참여자들의 이용만족도를 조사하여 분석하고 그에 따라 나타난 각종 문제점이나 보완사항 등 그 결과를 향후 도시녹화 사업을 계획함에 있어 적극 활용하고자 수행하였다.

II. 연구범위 및 방법

연구는 설문조사법(Survey Research)을 사용하였으며, 설문은 자기기입식(Self Administration) 설문과 전화설문을

이용하였다. 기간 2009년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두 달 동안에 걸쳐 25개 자치구의 시민단체, 직능단체를 통한 노인정, 유치원, 대안학교, 마을 등에서 상자텃밭을 보급 받아 가꾸고 있는 개인 및 단체 참여자를 대상으로 개인설문 200인은 전화설문하였고, 단체설문 200인에게는 설문지 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중 통계처리에 적합하지 않은 설문지를 제외하고 개인설문 167인, 단체설문 147인을 수거하여 표본으로 사용하였고 조사된 결과의 통계처리는 SPSS 통계프로그램(ver 12.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만족도에 관한 항목은 5점 리커트 척도를 이용하였고, 교차분석, 빈도분석을 이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상자텃밭이라 함은 규격 27cm×27cm×25cm의 화분에 가볍고 보수 및 배수력이 좋은 경량토(피트모스, 질석, 버미큘라이트 등)와 오염되지 않은 일반 흙을 2:1의 비율로 배합하여 모종(고추, 방울토마토, 상추 등)을 심은 것으로 정의하였다(<http://www.sgt.or.kr/>).

III. 결과 및 고찰

분석 결과 상자텃밭 가꾸기에 참여한 개인의 경우 주부가 65%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거주 지역별 분포는 서울시 내 25개 자치구와 경기도 권역까지 고르게 분포하여 상자텃밭의 보급이 고르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자의 연령대를 분석한 결과 30~40대가 상대적으로 높은 빈도를 보이고 있었고 이는 아이들을 둔 주부들이 자녀의 환경교육과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서 상자텃밭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단체 참여자의 특성을 분석한 결과 어린이집 및 유치원이

63%로 가장 빈도수가 높게 나타났고 아이들의 생태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상자텃밭이 적극 활용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경로당, 아파트 공용 상자텃밭의 경우 현대의 고령화된 사회에서 노인들에게 소일거리를 제공함으로써 그들이 느끼는 사회적 소외감을 벗어나 삶의 질을 높이고 이웃과 세대가 소통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해 주었다. 성별에 따른 모종 선호도의 경우 여성은 방울토마토(50.80%)를 그리고 남성은 고추(47.80%)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자텃밭 보급은 서울그린트러스트의 이벤트 및 집중 보급 1만개, 서울시 내 공원의 시민녹화교실을 통해 1만개를 보급하였고 보급과정 중의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만족한다’ 는 의견이 70%, ‘매우 만족한다’ 라는 응답은 20%로 대부분의 개인 참여자들의 90%가 비교적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체 참여자의 상자텃밭 보급과정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만족한다’ 는 응답이 47%, ‘매우만족한다’ 라는 응답은 37%로 대부분의 개인 참여자들도 84%가 보급과정에서 비교적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자텃밭 재배과정에 대한 개인참여자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만족한다’ 는 의견이 8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단체 참여자의 경우 ‘매우만족한다’ 가 23%이고 ‘만족한다’ 가 55%로 분석되어 전반적으로 재배하고 수확하는 과정중에서 78%의 참여자들이 만족감을 느낀 것으로 나타났다.

‘상자텃밭 가꾸기 사업’에 대한 만족도의 경우 개인 참여자의 상자텃밭 가꾸기 사업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만족한다’ 는 의견이 86%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단체 참여자의 상자텃밭 가꾸기 사업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만족한다’ 는 의견이 86%로 가장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아 대부분의 참여자들이 ‘상자텃밭 가꾸기 사업’ 을 긍정적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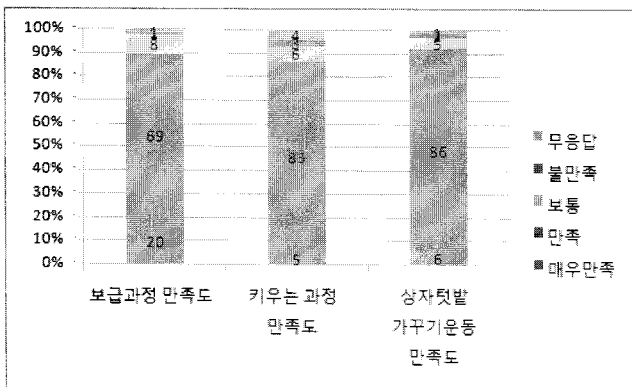


그림 .1 개인 참여자의 만족도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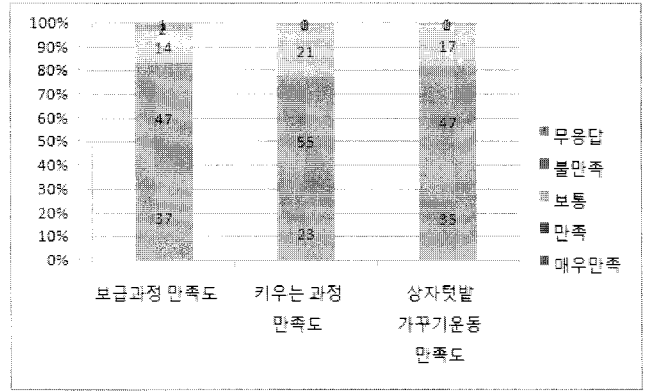


그림 2. 단체 참여자의 만족도 조사

로 평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업의 효과에 대한 인식은 개인과 단체 참여자 모두 아이들의 환경교육에 대한 기여도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여름, 가을작물 재배 참여 의향에 대해서는 8월말에 무 또는 배추를 심고 싶다는 의견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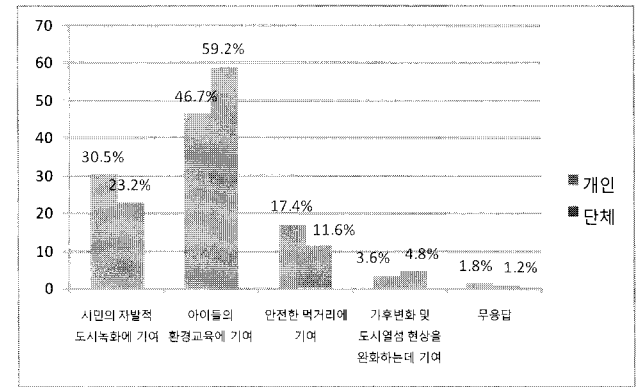


그림 3. 상자텃밭 가꾸기 사업의 효과에 대한 평가

총 15개 자치구의 147개소를 현장 방문하여 상자텃밭 관리자와의 인터뷰 및 모니터링을 한 결과 단체 참여자의 58%가 기존의 다른 텃밭을 가지고 있었다. 관리자 여부는 단체 참여 대상자의 경우 지정된 관리자가 있는 비율이 74%로 매우 높게 나타났고 구청원 모두가 자율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비율이 24%로, 단 2%만이 관리자가 없었다. 텃밭일지 기록여부는 응답자 74%가 재배과정 기록을 남기지 않고 있으며 상세한 기록을 남기는 경우는 7%에 불과했다.

고추, 방울토마토, 상추 등 배급 후 작물 생존률은 대부분 90% 이상 생존률을 보였다. 단, 상추의 경우 상대적으로 생존률이 낮은 편이었다. 물관리의 경우 매일 잘 관리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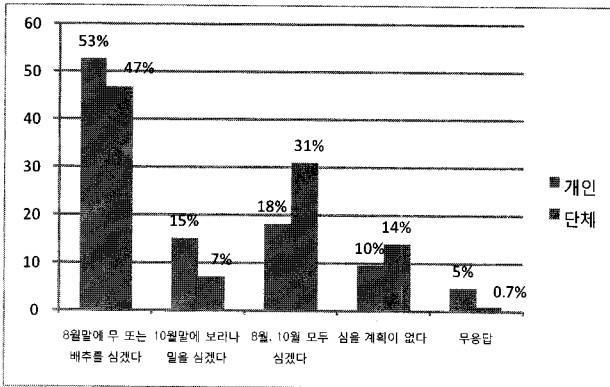


그림 4. 여름, 가을작물 재배에 대한 참여 의향 분석

있었으며, 퇴비를 주는 경우는 38%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매뉴얼에서 제시된 발효된 오줌을 주는 경우는 2%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 전통적인 비료인 오줌을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혐오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상자텃밭에 고추와 방울토마토를 지지하는 지주를 설치한 곳은 91%였으나 이 중 59%는 적절하게 설치되지 않았던 것으로 평가되어 재배관리 기술이 부족함을 나타내고 있다. 병충해는 76%가 발생하지 않고 있으나 특정 작물에 21% 정도가 발생하여 병해충 예방에 대한 사후 교육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경관관리는 대부분 주택의 옥상, 주택가 골목길, 아파트 공용 공간, 학교의 운동장 등 상자텃밭의 특성을 살려 자투리 공간에 배치되어 도시녹화에 긍정적으로 평가되었으며 그 중 94% 이상이 청결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상자텃밭 활용 면에서 주 1회 이상 생태 교육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68%에 달하여 이용 면에서 큰 성과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상자텃밭 보급이 늦은 경우가 있어 방문모니터링 시 72%만이 수확물을 경험한 상태였으며, 그 중 82.7%가 대

부분 가족 등 구성원의 먹거리로 활용하고 있으며, 6.7%는 이웃과 함께 나누고 있으며, 0.7%는 소외계층을 위해 나누는 것으로 나타났다.

IV. 결론

본 연구는 상자텃밭 가꾸기 참여자 만족도 분석을 통해 향후 진행될 상자텃밭 가꾸기 및 도시녹화 사업의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참여자들 대부분이 도시에서 상자텃밭 가꾸기를 통해 작물을 직접 재배하고 수확하며 환경교육의 일환으로 활용하고 있어 매우 만족하고 있었다. 전반적으로 물을 잘 주어 재배에 성공하였으나 지주설치, 퇴비주기 등의 재배기술이 부족함을 느낄 수 있어 향후 이에 대한 교육과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이 사업이 일회적인 성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실질적인 관리매뉴얼 등을 보완하고 재배작물 등의 추가지원을 통한 다양성 확대를 통해 참여자들의 만족도의 질을 높여준다면 상자텃밭 가꾸기 사업이 전국민의 자발적인 시민녹화사업의 기폭제로 활성화될 것이라 생각된다.

V. 인용문헌

김승윤 (2005). 도시 옥상 비오톱의 환경교육적 활용을 위한 연구. 환경교육18권 3호(pp.33-44)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2009) 한국도시농업 창립기념 심포지엄 자료집
http://www.seoul.go.kr/envi_info/green/index.html
<http://www.sgt.or.kr>